

山林(詩)

時計가 자근자근 가슴을 따려
하잔한 마음을 山林이 부른다。

千年 오래인 年輪에 짜들은 幽寂한 山林이
고달픈 한몸을 抱擁할 因緣을 가졌나보다。

「山林의 검은波動우로부터
어둠은 어린 가슴을 질밟는다,」

멀리 첫여름의 개고리 재질땀에
흘러간 마을의 過去가아질타。

가지, 가지사이로반짝이는별들만이
새날의 饗宴으로 나를 부른다。

발거름을 멈추어
하나, 둘, 어둠을 헤아려본다
아득하다

문득 뉘아리흔드는 저녁바람에
좌—— 무섭이올마오고。

산림

시계가 자근자근 가슴을 때려
하잔한 마음을 산림이 부른다.

천년 오래인 연륜에 짜들은 유적한 산림이
고달픈 한 몸을 포옹할 인연을 가졌나보다.

산림의 검은 파동 위로부터
어둠은 어린 가슴을 짓밟는다

멀리 첫여름의 개구리 재질땀에
흘러간 마을의 과거가 아질타.

가지, 가지사이로 반짝이는 별들만이
새날의 향연으로 나를 부른다.

발걸음을 멈추어
하나, 둘, 어둠을 헤아려본다
아득하다.

문득 이파리 흔드는 저녁 바람에
좌—— 무섭이 읊아오고.